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ESG 활동의 일환으로 '직원식당 잔반 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환경 보호를 실천하자는 취지다. 4월 17일에는 잔반 없이 식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뽐기 이벤트가 진행됐다. 5월부터는 월 15회 이상 잔반 없이 식사한 직원에게 직원카페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잔반 제로 목표달성 챌린지'를 진행한다. 사진은 4월 17일 신관 직원식당에서 직원들이 뽐기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지나호 정답



제746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꿈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문화·생활정보 - 별빛이 내린다, 은하수 보러 가자'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이노베이션디자인센터 강민영 주임이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천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5년 5월 15일(목)
발표 제750호(2025년 6월 1일 발간)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소속 :
전화번호 :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독자를 위한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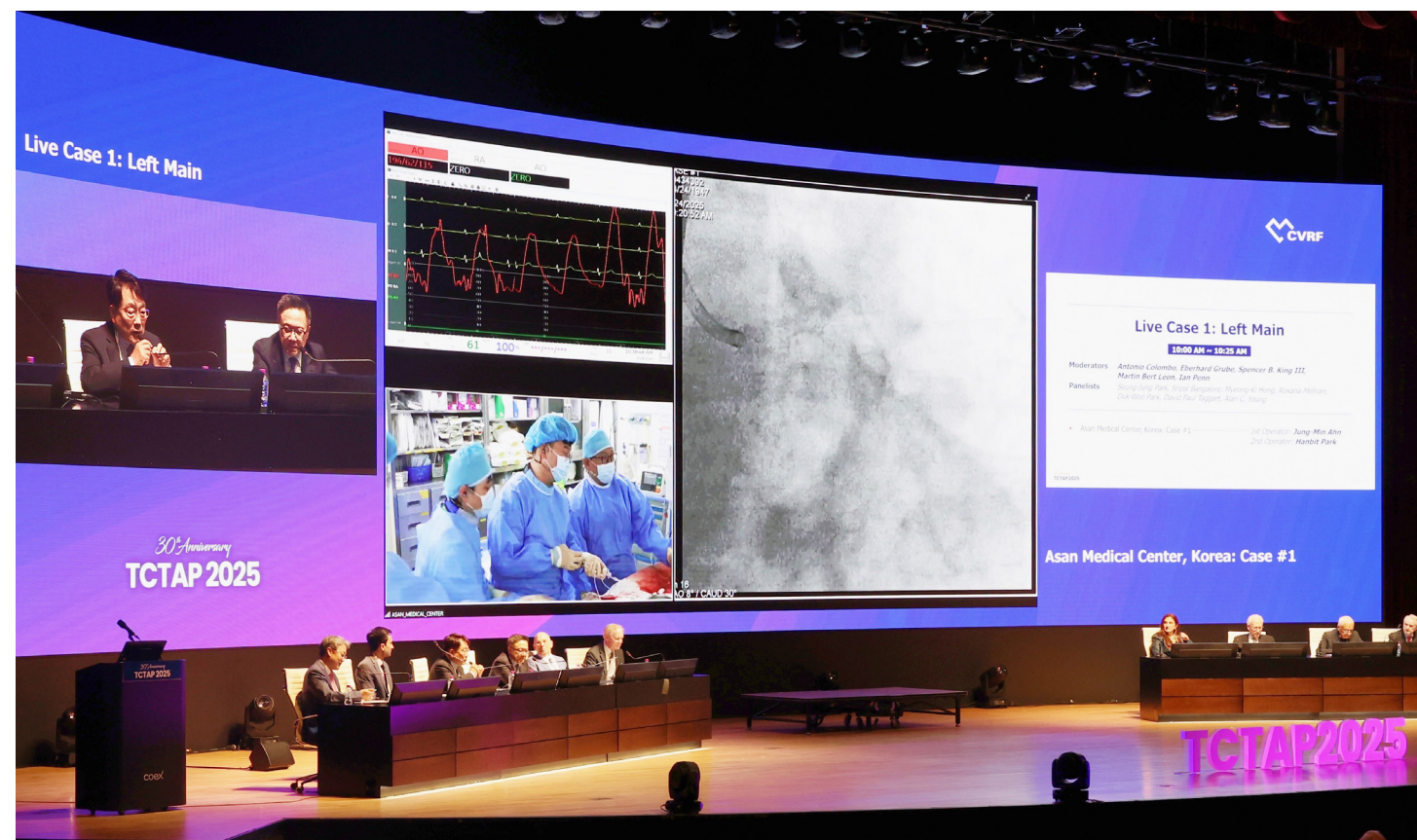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김민지(외래간호팀 외래8 유닛)

피톤치드 룸&패브릭 스프레이
강태경(중환자간호팀)
황인숙(외과간호1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박명희(중앙공급팀)
진주희(건진운영팀)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김정진(수술간호팀)
임근희(외래간호팀)
장순미(원무팀)
조정미(외래간호팀)
최자윤(수술간호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권애준(수술간호팀)
조미영(영상의학팀)



30년 이어온 심장 연구의 집념

관상동맥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TCTAP)가 4월 23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TCTAP는 우리 병원 심장병원 의료진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1995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30회를 맞았다. 지난 30년 동안 매년 전 세계 3,000여 명의 심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700여 건의 최신 지견 및 임상 사례 발표, 20여 건의 라이브 케이스(시술 생중계) 등을 진행하며 심장질환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사진은 4월 24일 진행된 라이브 케이스 세션에서 심장내과 박승정 석좌교수, 박덕우 교수(왼쪽 세 번째, 첫 번째)를 비롯한 패널들이 심장내과 안정민 부교수팀이 시연하는 좌주간부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보며 토론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2면)

03 NEWS 중증 승모판 역류증, 성별 따라 수술 시점 달라

08 AMC IN(人)sight 신경외과 김모이네 부교수

14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 변화 속에서 길을 찾다

16 문화·생활정보 구독의 시대



서울아산병원 뉴스로
병원 소식을 한눈에

30주년 TCTAP, 전 세계 심장 석학 한 자리에



4월 25일 진행된 라이브 케이스 세션에서 심장내과 강도윤 부교수팀(가운데 화면)이 좌주간부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선보인 뒤 패널과 토론하고 있다.

심장혈관연구재단(이사장 박승정)이 주최하고 우리 병원 심장병원이 후원하는 제30회 관상동맥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TCTAP 2025)가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TCTAP는 매년 전 세계 심장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국제 학술행사로, 1995년 처음 열린 이후 올해로 30회째를 맞았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72개국 3,100여 명의 심장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미국의 마틴 버트 레온, 영국의 데이비드 폴 태가트,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콜롬보, 일본의 다카시 쿠보 등 세계적인 심장 석학들이 연자로 참여했다. 학술회의에서는 ▲관상동맥 중재시술 ▲혈관 내 치료 ▲구조적 심장 및 판막질환

치료 ▲좌주간부 질환 ▲심혈관 이미지 및 생리학 등을 주제로 기초 지식부터 최신 연구 동향을 심도 있게 다루는 세션들이 진행됐다. 특히 라이브 케이스 세션에서는 우리 병원을 비롯해 프랑스 클리니컬 파스퇴르 툴루즈, 일본 쇼난 가마쿠라 종합병원 등 10개 센터가 참여해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술기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4월 24일 열린 TCTAP 30주년 기념식에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학술회의를 이끌어 온 우리 병원 심장병원 의료진에게 축하와 격려 인사를 전했다.

심장내과 박승정 석좌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관상동맥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에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심장 연구를 위한 열정과 학문 발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왼쪽 다섯 번째)이 학술회의 30주년을 축하하며 박승정 석좌교수(왼쪽 네 번째)를 비롯한 우리 병원 의료진과 환담하고 있다.

CAR-T 치료 100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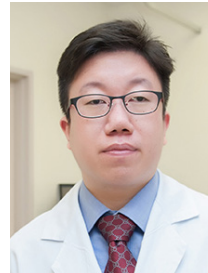
암병원 CAR-T센터가 최근 CAR-T 치료 100례를 달성했다. CAR-T 치료는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세포(T세포)를 추출해 특정 암세포를 공격하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를 T세포에 발현시킨 뒤, 환자에게 다시 주입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치료법이다. 재발 및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모구백혈병과 미만성거대 B세포림프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소포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간세포암 등 다양한 암에 대한 임상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 병원은 2022년 5월 CAR-T 치료를 처음 시작해 3년여

만에 100례를 달성했다. 우리 병원 CAR-T센터는 신경과, 감염내과, 중환자실 등 여러 진료과와 협력해 국내 최초 CAR-T 치료 다학제클리닉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을 통해 치료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100례 동안 만 1세 미만부터 85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들이 CAR-T 치료를 받았다. 치료 반응률은 재발 및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모구백혈병에서 89%, 재발 및 불응성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에서 60%로 나타나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모두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 승모판 역류증, 성별 따라 수술 시점 달라



김대희 교수

퇴행성 승모판 역류증은 노화로 인해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가는 입구에 위치한 승모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좌심실 수축 시 혈액이 좌심방으로 역류하는 질환이다. 심장내과 김대희 교수팀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승모판 역류증 초기 단계부터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팀은 중증 퇴행성 승모판 역류증 수술 환자 1,686명을 8.2년간 추적 관찰하며 성별에 따른 좌심실 기능과 사망률 간 연관성을 분석했다. 좌심실 기능은 좌심실에 들어온 혈류량 대비 대동맥으로 빠져나간 혈류량 비율을 심초음파로 측정하는 ‘좌심실 박출률’과 좌심실 수축력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영상지표인 ‘좌심실 종축변형률’로 확인했다. 현재는 좌심실 박출률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무증상이라도 성별 구분 없이

수술을 권고한다.

연구팀은 좌심실 박출률 55% 이하, 55~60%, 60% 초과 세 집단으로 나눠 성별에 따른 사망률을 분석했다. 다변량 분석 결과 여성의 좌심실 박출률이 55% 이하인 경우 60% 초과 집단보다 사망 위험이 3.48배, 55%~60%인 경우 2.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좌심실 종축변형률을 기준으로 19.9% 미만, 19.9~23.4%, 23.4%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눠 분석했는데 여성은 좌심실 종축변형률이 낮아질수록 사망률이 증가했다. 남성은 19.9% 미만 그룹에서만 사망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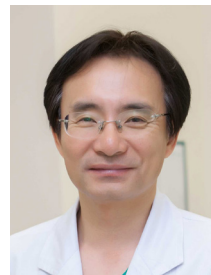
김대희 교수는 “좌심실 종축변형률은 좌심실 기능 저하 초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지표다. 향후 성별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수술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국제학술지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최근 게재됐다.

췌장암 면역치료 효과 높일 유전자 변이 발견



전은성 부교수



김승철 교수

다른 암종에 비해 낮은 췌장암 면역치료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특정 유전자 변이 패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의생명연구소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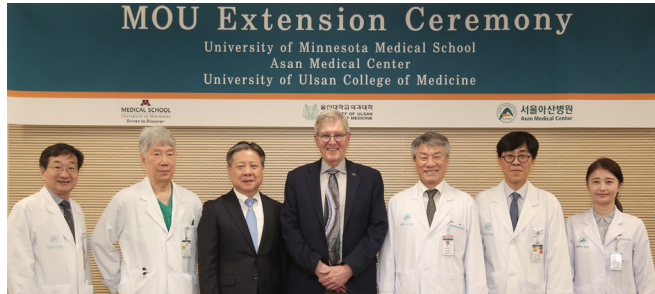
은성 부교수, 간담도췌외과 김승철 교수팀은 췌장암 환자들의 종양미세환경 분석 결과 면역세포가 많으면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면역세포 분포가 췌장암 유발 주요 유전자 변이인 KRAS 하위 유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팀은 췌장암의 종양미세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췌장암 수술 환자 17명의 종양조직을 대상으로 다중형광 면역화학조직 염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면역세포가 종양 부위보다 세포외기

질 부위에 약 3.8배 높은 빈도로 분포하는 것을 파악했다. 세포외기질은 암세포 주변에 쌓여 암 치료 저항성을 높인다.

이때 면역세포 중 T세포가 많을수록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세포가 많을수록 세포외기질 침착이 비례하여 증가했지만 세포외기질 밀도가 약 40% 이상으로 증가하면 오히려 T세포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전장엑솜분석으로 세포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T세포 분포 변화가 췌장암 유전자 변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확인했다. 특히 췌장암 유발 대표 유전자 변이인 KRAS 변이의 하위 유형 중 G12D 변이보다 G12V 변이를 가진 종양에서 T세포가 활발하게 분포하는 점을 발견했다. 나아가 연구팀은 KRAS 유전자변이를 유도한 환자 유래 종양 오가노이드 모델에서 T세포의 활성 감소와 관련한 인자까지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종양학 분야 국제 학술지 「캔서 레터스」에 게재됐다.

미네소타의대와 연구 및 교육 협약 지속



4월 11일 열린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원 연구원장, 이승규 간이식·간담도외과 석좌교수, 임영석 울산의대 학장, 티모시 프루엣 미네소타의대 이식외과 교수, 박승일 병원장, 송기원 간이식·간담도외과 교수, 탁은영 융합의학과 부교수.

우리 병원과 울산의대가 2015년 미국 미네소타의대와 체결한 '장기이식 및 줄기세포 등에 관한 공동 연구 및 교육' 협약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내용의 체결식을 4월 11일 진행했다. 세 기관은 2027년까지 협약을 연장해 ▲뇌사자 및 생체 간이식, 기증자 간절제, 간 기증에 관한 임상 연구 ▲재생의학, 줄기세포, 바이러스 이식 관련 기초·중개 연구 ▲장기이식 정보, 생체 및 뇌사자 간이식 평가 시스템 관련 정보 공유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병원과 미국 미네소타의대와의 인연은 2014년 10월 미네

소타대학병원이 장기이식 관련 협력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이후 2015년부터 공동 연구와 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 왔다. 우리 병원은 지난 10년간 미네소타의대 의료진 18명에게 변형우엽 간이식과 2대 1 간이식, ABO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 등 우리의 독자적인 생체 간이식 수술법을 전수했다. 1955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 의료의 재건을 이끌었던 미네소타의대가 2015년부터는 우리에게 고난도 간이식술을 배우는 입장이 된 것이다.

우리 병원에서도 의료진 7명이 미네소타의대를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줄기세포 치료 기술을 배워왔다. 또한 미네소타의대 의료진과 공동으로 ▲간 유래 마이크로RNA 줄기세포 기반의 간이식 면역억제 세포치료 기술 개발 연구 ▲간담도암 줄기세포 기반의 오가노이드 활용 치료 기술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해 왔다.

간이식·간담도외과 이승규 석좌교수는 "미국에 장기간 생체 간이식을 전수해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의료가 세계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협력을 통해 세계 각지의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얀마 의료진 표면 유도 방사선치료 교육



미얀마 모에 카웅 병원 나잉 소에 쉐 부교수(왼쪽 여섯 번째)를 비롯한 방문단이 송시열 방사선종양학과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우리 병원 의료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얀마 모에 카웅 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의료진이 표면 유도 방사선치료 교육을 받기 위해 4월 17일 우리 병원을 방문했다. 우

리 병원은 2022년 아시아 최초로 '표면 유도 방사선치료 트레이닝센터'를 구축하여 국내 의료기관 전문가 대상 교육을 20여 회 실시해 왔는데, 아시아 권역 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얀마 의료진 3명 등 방문단은 환자 신체에 별도 표식 없이 3차원 카메라 기술로 환자의 자세를 재현해 치료 부위의 좌표와 일치시켜 치료하는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고 돌아갔다.

송시열 방사선종양학과장은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등 다양한 암종에 대한 표면 유도 방사선치료 노하우를 해외 의료진에게 잘 전수해 우리 병원이 아시아의 최첨단 방사선치료 교육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장지킴이 토크 콘서트



심장지킴이 토크 콘서트에서 심장내과 송종민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심장질환의 올바른 정보와 관리법을 전달하는 무료 건강강좌 '심장지킴이' 토크 콘서트가 4월 24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심장내과 송종민·이승환·이상언 교수, 김민수 조교수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정성호 교수가 강사로 나서 심장 질환 치료와 건강한 심장 관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 특별 이벤트로 우리 병원 심장혈관중환자실 밴드 '사이너스(SINUS)'가 공연을 펼쳤다.

유방암 야외 특강



유방외과 김희정 교수가 유방암 환자, 보호자들에게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유방암 치료와 관리법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암 치료 중인 당신 곁에' 특강이 4월 21일 서관 앞 야외 공원에서 열렸다. 환자, 보호자 40명이 참석한 이번 특강은 유방외과 김희정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사전, 현장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서적 안정을 위한 도서 소개와 위로의 마음을 담아 함께 노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병원 암병원은 다양한 암종을 주제로 한 '암 치료 중인 당신 곁에' 정기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간센터 심포지엄



간센터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2회 간센터 심포지엄이 4월 12일 아산생명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간질환 분야 의료진 1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울아산병원의 간질환 연구 최신통향 ▲간세포암의 화학예방과 조기진단 ▲간암 치료의 혁신적인 다학제 치료전략 등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미네소타의대 이식외과 티모시 프루엣 교수가 '세포 노화, 간이식과 암의 상호 연관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암재활 워크숍



암재활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암재활 워크숍이 4월 26일 동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두경부암의 포괄적 재활: 도전과 전략, 다학제적 접근'을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두경부암 재활 분야 의료진 80여 명이 참여했다. 제1세션에서는 ▲두경부암 수술 치료 및 수술 후 관리 ▲두경부암 수술 후 림프부종 관리 등을 주제로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고, 제2세션에서는 ▲수기 림프 배출법(MLD) ▲목과 어깨 기능 장애 관리 등 두경부암 재활 실습이 진행됐다.

동 정

최기준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심장내과 최기준 교수가 4월 11일 대한병원협회 제66차 정기총회에서 부정맥 치료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보건 의료 수준 향상과 의료계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사호석 교수 아시아태평양안과학회 공로상



안과 사호석 교수가 4월 3일부터 4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0회 아시아태평양안과학회에 공로상을 받았다. 사 교수는 성형안과 분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학회 학술 프로그램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이 상을 받았다.

대한장연구학회서 수상



예병덕 교수



홍승욱 조교수



김민규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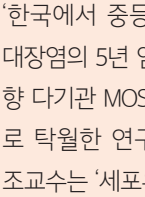
4월 10일부터 3일간 열린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소화기내과



윤용식 교수



이호수 부교수



김민규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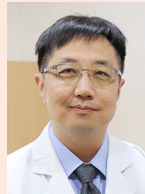
‘한국에서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의 5년 임상경과: 전국 전향 다기관 MOSAIK 코호트 연구’로 탁월한 연구자상을, 홍승욱 조교수는 ‘세포유리 DNA조각 분석을 이용한 새로운 혈액 기반

대장암 진단검사법의 진단능력 평가’, 김민규 조교수는 ‘면역관문 억제제 유발 대장염에서 CD8+ 세포의 기능적 우위 및 내시경 소견에 따른 이질성’을 주제로 각각 우수포스터구연상을 받았다. 12일에 열린 학회 총회에서 예병덕 교수와 대장항문외과 윤용식 교수,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이호수 부교수는 ‘크론병 환자의 비염증 장조직에서 Th17 조직상주 기억세포의 특성 규명’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학술상을 받았다.

소화기내과·의공학연구소 의료진 학회서 수상



변소영 진료전임강사



정기욱 교수



최경민 연구원



주세경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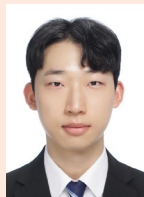
소화기내과 변소영 진료전임강사, 정기욱 교수, 의공학연구소 최경민 연구원, 주세경 교수팀이 4월 19일부터 이틀간 열린 서울국제소화기병심포지엄(SIDDS 2025)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고해상도 임피던스 식도내압검사를 통한 위식도역류질환(GERD)의 예측 모델’을 주제로 최우수구연발표상을 받았다.

김현경 임상강사 우수구연상



대장항문외과 김현경 임상강사가 4월 4일부터 3일간 열린 대한대장항문학회 제58차 학술대회에서 ‘크론병 항문 누공 치유 촉진을 위한 치료제로서 폴리데옥시뉴클레오티드(PDRN)의 가능성 평가’를 주제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ASP팀·감염내과 연구팀 학회서 수상



강원구 사원



권경섭 연구원



최연주 연구원

ASP팀과 감염내과 연구팀이 4월 3일부터 이틀간 열린 대한항균요법학회·대한감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ASP팀 강원구 사원은 ‘의료 시스템 위기에서 항생제 관리 프로그램 중단이 항생제 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 단일 기관 연구’를 주제로 우수연제상을, 감염내과 권경섭·최연주 연구원은 각각 ‘한국 롱코비드 코호트에서 SARS-CoV-2 감염 후 후유증(PASC) 지표 및 새로운 롱코비드 정의의 평가’, ‘면역저하 환자에서 확인된 침습성 폐 아스페르길루스증 유사 녹농균 폐렴’을 주제로 우수연제상을 받았다.

이 달의 후원자

개인 및 단체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이신재	100,000,000원
한국트랜스(주)	100,000,000원
한솔섬유(주)	100,000,000원

불우환자 지원

강동석	1,000,000원
김양희	1,000,000원
안중성	1,000,000원

장현중	1,000,000원
황윤희	10,000,000원

- 2025년 4월 14일 기준, 가나다 순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 유닛 (원내 02-3010-6207)

SPECT/CT를 활용한 엄지손가락 기저 관절염 치료 예측



핵의학과 김용일 부교수

핵의학과 김용일 부교수는 올해 초 열린 미국대학 핵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증상이 있는 엄지손가락 기저 관절염의 보존적 치료 결과 예측을 위한 정량적 뼈 SPECT/CT의 유용성’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초록상을 받았다. 이 연구 결과는 증상을 동반한 엄지손가락 기저 관절염 환자에서 표준 방사선 검사만으로는 치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정량적 뼈 SPECT/CT가 보존적 치료의 예후 예측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Q. 연구의 배경은? 엄지손가락 기저 관절염은 흔한 퇴행성 질환으로 폐경 이후 여성의 25%, 남성의 5%에서 발생할 정도로 유병률이 높다. 단순 방사선 촬영으로 관절의 형태학적 변화를 평가할 수는 있으나 질병의 진행 정도와 최적의 치료법을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뼈 SPECT/CT가 보존적 치료의 성공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했다.

손가락 관절의 최대 표준화 섭취값(Maximum Standardized Uptake Value, SUVmax)을 측정했다. 분석 결과 보존적 치료 성공군과 실패군 간의 인구학적 정보 및 방사선학적 중증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치료 성공군에서 SUVmax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높은 SUVmax 수치가 보존적 치료 성공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Q. 연구에 대해 설명하면?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초진 후 4주 이내에 정량적 뼈 SPECT/CT 검사를 시행하고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를 완료한 엄지손가락 기저 관절염 환자 7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환자의 통증은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로 평가했으며 기능적 장애는 악력, 핀치력, 환자 평가 손목/손 기능 척도를 활용해 측정했다. 양손을 단순 방사선 촬영해 수정된 이튼-글리켈(Eaton-Glickel) 분류법에 따라 관절염의 중증도를 분류했다. 또한 정량적 뼈 SPECT/CT 검사를 통해 염증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엄지

Q.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엄지손가락 기저 관절염 환자에서 정량적 뼈 SPECT/CT의 SUVmax 값이 높을수록 보존적 치료의 성공 가능성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했다. 이는 표준 방사선 검사를 보완하는 객관적 치료 예측 도구로서 정량적 뼈 SPECT/CT의 역할을 시사한다. 향후 보다 다양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정량적 뼈 SPECT/CT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치료 효과와의 연관성을 평가해 환자의 치료 예후를 예측하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 우리 병원이 내놓은 여러 연구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보에서는 ‘연구노트’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빠르게, 하지만 신중하게



신경외과 김모이네 부교수 신경외과 영역에서 신경중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김모이네 부교수는 수술 후 고도화된 전문 치료와 꾸준한 관리로 환자 삶을 바꾸는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순간의 판단이 누군가의 삶을 결정할 수 있기에, 재빠른 결정만큼 올바른 판단이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

골든타임, 순간의 무게

전공의 시절, 외상성 뇌출혈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됐다. 재빠른 개두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을 준비하는 동안 뇌탈출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찰나였다. 즉시 뇌압 조절을 시행한 뒤 수술에 들어갔고, 환자는 신경학적 후유증 없이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 “신경외과 중환자 치료에서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측 기반 치료가 필수적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환자의 악화 조짐을 감지할 수 있는 신경중환자 모니터링과 치료 프로토콜 개선 연구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됐죠.” 급성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 뇌손상, 뇌염, 경련 등은 일반

중환자와 다르게 신경학적 평가가 필요하고 생리적 안정뿐 아니라 뇌압 조절, 혈류 유지, 신경 보호 전략이 중요하다. 김 부교수의 침착한 성격과 논리적인 사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데이터 기반의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됐지만, 환자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는 성향은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신경중환자는 좋아지는 데 일주일도 걸려도 나빠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혼자선 빈틈없이 해내기 어렵죠. 의료진이 서로 신뢰하고 내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과 협업하며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병원의 신경외과 중환자 치료를 표준화하고, 최적의 치료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환자 인생의 점프 구간

그의 환자들은 대부분 의식이 없거나 경미한 뇌출혈이라도 언어나 근력 장애 등의 후유증을 갖는다. 그래서 환자 대신 환자 가족과 되도록 많이 접촉하고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 치료의 일부”라며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똑같은 연령과 질병이라도 환자마다 예후가 다르고 가족의 협력이 치료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 번 손상된 뇌 또는 척수 신경은 자연적인 회복이 제한적이지만, 반복적인 재활 치료와 더불어 보호자에 의한 시각 및 관절 자극 등의 감각적 자극이 꾸준히 제공될 경우 주변 신경세포들의 보상 기전을 통해 환자의 기능적 상태는 유의미하게 호전될 수 있다. “아침까지 가족과 밥을 먹고 TV를 보다가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켜 반신마비가 되기도 해요. 수술 자체는 잘 됐어도 반신마비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돌보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만 있던 환자가 조기 재활을 받고 처음 휠체어에 올라탈 때, 저는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환자 인생에 큰 점프를 하는 구간이니까요.”

신경중환자 치료의 미래

위급한 순간에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외과적 치료에 선 상당한 보람과 성취를 느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회복이 어렵고 좋지 않은 예후를 보호자에게 전달할 때면 무거운 마음을 떨쳐내기 어렵다. ‘힘들어도 네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사명을 다하라.’ 의사인 아버지의 조언대로 신경중환자 치료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목표는 나날이 견고해진다. “CT 결과를 보며 환자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예감만 가지고는 치료가 한 타임씩 늦을 수밖에 없어요. 미리 대비할 방법을 찾고 싶었죠.” AI를 활용한 EEG(뇌파 검사) 자동 분석 기술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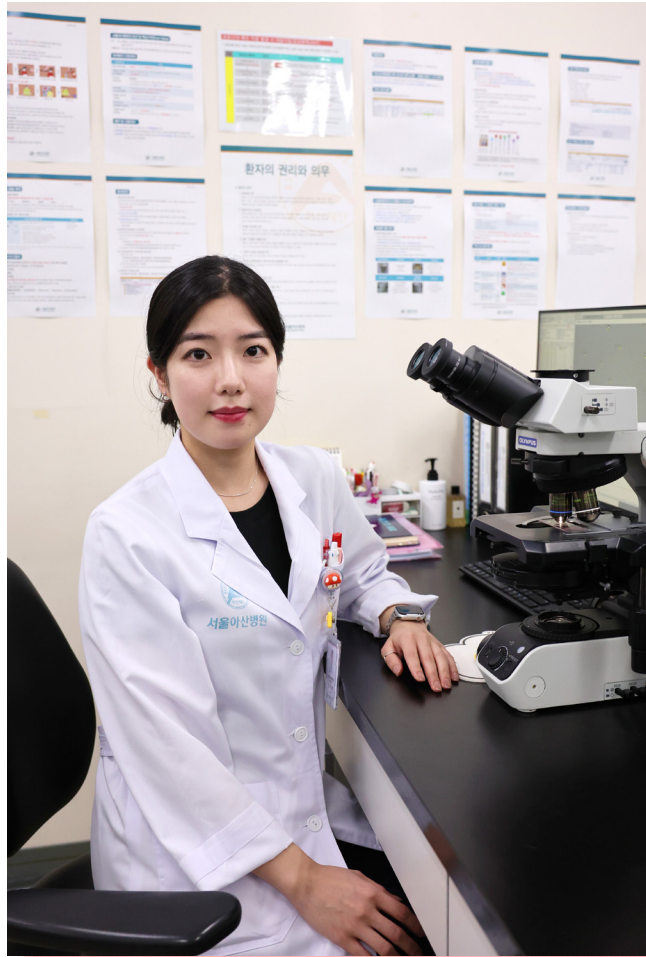
다 빠르고 정확한 경련 탐지가 가능해지면서 김 부교수는 이를 임상에 도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신경중환자의 치료 반응을 실시간으로 평가해 조기에 개입한다면 환자의 신경학적 예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근감소증이 있으면 신경학적 회복이 더디고 재입원과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면서, 그는 인바디를 이용한 근감소증 조기 진단과 근육이 안 빠지게 하는 치료 개입 전략을 탐색하고 있다. 중환자실에서 고단백 식이와 적극적인 재활 치료로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것이다. “신경중환자 치료는 단순한 생존이 아닌, 환자가 다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신경중환자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신경외과 의사이자 임상연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병원보는 ‘AMC IN(人)sight’ 코너를 통해 진료·교육·연구 분야에서 새 길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의료진을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진단검사의학팀 김지혜 주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임상미생물 유닛에서 PCR 검사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임상병리사는 중학교 시절 병원에 갔다가 처음 알게 된 이후 꼭 꿈꿔온 직업이었다. 6개월 후 임상화학 유닛으로 발령받아 요검사 파트에서 소변 속 세포, 결정, 원주, 세균 등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요침사 검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처음엔 소변이 제 손에 묻을까 봐, 특유의 냄새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의 검체로만 여겨져요. 오히려 작은 수치 하나, 슬라이드 한 장이 누군가의 회복과 안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책임감이 들 뿐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자의 상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내 의료진의 적절한 치료를 돕는 일. 진단검사의학팀을 ‘병원의 조용한 엔진’으로 여기며 자부심을 갖는 이유다.

정확하고 신뢰받는 진단검사의 시작

임상화학 유닛 요검사 파트는 7명의 임상병리사가 하루에 1,500여 건의 소변 검사를 진행한다. 소변은 여러 대사산물을 포함하고 있어 요로계 이상뿐 아니라 전신적인 내분비 질환, 대사 질환, 전해질 이상을 비롯한 각종 질환을 선별하는데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질병 진단의 시작점이자 치료 방향을 설정하고 질환을 관리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소변 검사로는 요시험지 검사, 요침사 검사, 요화학 검사, 소변 배양 검사 등이 있다. 요침사 검사의 경우 검사자의 관찰이 직접 결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높은 책임감을 요구한다. 소변 속 구성 성분은 서로 유사해 보이기도 하고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판독과 오류를 줄이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검사 결과가 모호할 때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참고 자료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신중을 기한다. 검사자 간의 결과 편차를 줄이고 일관성 있는 보고와 검사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주기적으로 자체 블라인드 테스트도 하고 있다.

“진료는 환자를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지만
정확한 진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준비됩니다.
하루에 처리하는 수백, 수천 건의 검사에 오류가
없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만큼은
진료과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1. 김지혜 주임이 요검사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 장비에서 비중 측정이 어려우면, 굴절계로 직접 비중을 측정한다.
3. 김나현 사원(오른쪽)과 검정 결과를 보며 결정 형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거 교과서에서나 보던 건데!” 김지혜 주임은 현미경을 한참 들여다봤다. 정육각형 모양의 시스템 결정을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다. 동료에게 보여주자 역시 같은 반응이었다. 우리 병원에선 학교 실습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하고 다양한 케이스를 종종 만난다. 검경한 그대로 결과를 보고하기 때문에 낯선 모양의 결정체가 나오면 임상과에서도 되물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진료과로 연계되기도 한다.

“예전에 제가 결과 보고할 때 놓친 부분이 있어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되도록 많은 검체를 숙지해야 하기 때문에 갓 대학을 졸업하고 온 제가 극복해야 할 부분이 있었죠. 그때를 기점으로 매일 열심히 공부했어요. 팀에 구비된 책을 한 권씩 빌려다가 최대한 많은 그림을 눈에 익혔고요. 검체를 직접 보고 선임이 보고한 결과와 같은 결과를 냈는지 내용을 맞춰보며 감각을 키웠어요. 업무가 익숙해진 뒤로는 다양한 검체 이미지를 캡처하고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요검사 파트에 처음 온 분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게끔요.”

검체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중에도 검사의 정확도 관리는 철저하다. 작은 오차에도 예민할 수 있어 장비 업체에 점검을 요청할 때가 많다. “이 정도로 많은 검사량이면 고장 나지 않는 게 신기하죠”라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김 주임은 요검사 파트의 인증 평가를 준비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정도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 올 연말에 있을 CAP 인증도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

“요검사 파트에서 4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한때는 다양한 파트를 얼른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분야를 깊이 경험하며 지식을 쌓는 이 시간이 의미 있게 느껴져요. 인증평가를 준비하면서 반복적인 검사 업무에선 알기 어려운 부분과 정도 관리 등을 두루 공부할 수 있어 시야도 한층 넓어졌고요. CAP 인증 과정은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지만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소변 색깔이나 최소 소변량에 대해 묻는 환자가 많다. ‘아메리카노를 마신 직후인데 관창을까요?’라고 적힌 소변컵을 수거한 적도 있다. 한 환자 어머니가 울먹이는 얼굴로 신관 외래 요검사실에 찾아왔을 때다. “이걸로 검사가 가능할까요?” 진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면서 아주 적은 양의 소변을 담아온 것이다. 최소 소변 검체량에 미치지 못해 장비 검사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머니를 안심시키고는 직접 현미경으로 검사해 빠르게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검사실에 다시 들른 어머니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덕분에 제시간에 진료를 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와 대면할 일이 적어 평소에 있고 지내던 것이 있었어요. 빠른 검사 결과만으로 누군가에게 큰 안심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요. 가끔씩 덕분에 빨리 진료를 보고 외래도 지연되지 않았다는 환자나 의료진의 인사를 받곤 해요. 그러면 무뎠던 마음에 조용한 자부심이 됩니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잡(job)·담(談)’ 코너에서는 우리 병원 각 부서의 전문가에게서 일의 수고와 기쁨을 들어봅니다.

AI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생활 ②

AI와 함께하는 새로운 데이터 분석



진단검사의학과 황상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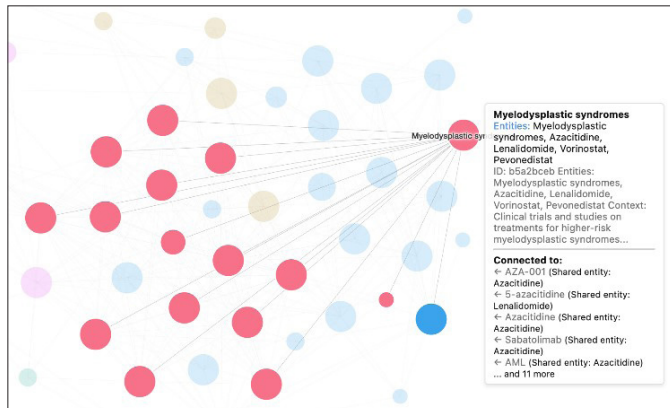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AI는 이제 분석 도구를 넘어 분석의 ‘동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등장한 대형언어 모델(LLM)은 코드 한 줄 모르는 사람도 데이터 분석의 세계에 발을 들이도록 돕고 있습니다. 과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R과 파이썬(python)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씨름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코딩 언어를 몰라도 데이터를 척척 분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연한 상상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 당신의 전문성과 데이터 사이언스가 만나면 더 큰 가능성이 열린다

데이터 분석은 지금껏 고급 통계 지식과 코딩 실력을 갖춘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AI의 힘을 빌리면 특정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누구나 복잡한 코드 없이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AI는 분석을 도와줄 수 있지만 그 결과를 해석하고 통찰로 바꾸는 건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전문성과 데이터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이터 인사이터’,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 대화하듯 분석하는 시대, Vibe Coding의 등장

ChatGPT, Claude, Grok3 등을 사용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바로 GitHub(github.com)와 접목했을 때였습니다. GitHub는 ‘소프트웨어·코딩을 위한 유튜브’와 같은 공간으로, 개발자들이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나 코드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참고하거나 개선하도록 만든 오픈 플랫폼입니다. 훌륭한 무료 앱도 풍부합니다. 예전에는 설치 중 발생하는 단순한 오류 하나에도 찢찢매곤 했지만 이제는 ChatGPT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설치부터 작동까지 할 수 있어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ChatGPT와 대화하며 코드를 만들고 이를 GitHub에 업로드하는 일은 제 연구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됐습니다. 마치 함께 연구하는 AI 동료를 얻은 기분입니다.



대형언어 인공지능 Claude 3.7으로 작성한 파이썬 코드를 기반으로, 논문 PDF에서 추출한 정보를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왼쪽)하는 앱을 구현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GitHub에 업로드도 했습니다(오른쪽).

이처럼 자연어로 “이 데이터에서 연도별 추세를 보여줘”라고 말하면 AI가 알아서 적절한 분석 코드를 생성합니다. 이를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이라고 합니다. 대화하듯 분석을 요청하면 AI가 이를 이해하고 R이나 파이썬 코드로 바꿔주기 때문에 개발자가 아니거나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Cursor, VS Code, ChatGPT Code Interpreter, Google Data Science Agent, Claude Sonnet 등 다양한 통합개발 환경과 LLM이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데이터 분석 입문자들이 빠르게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구글의 데이터 과학 에이전트, 직접 써보면 어떨까?

최근 구글이 ‘Data Science Agent in Colab with Gemini’를 출시했습니다. Colab(코랩, colab.research.google.com)이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노트북 환경에서 작동하며 구글의 생성형 AI인 Gemini가 자연어로 분석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직접 앱을 개발할 필요가 없듯 이제는 클릭 몇 번과 간단한 대화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

병원의 데이터 활용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전문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 병원 운영 최적화, 환자 대기시간 단축 등 의료 서비스가 향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룰 줄 모른다는 것이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는 시대, 이제 우리의 역할은 AI와 협력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곁에 두고, AI와 대화하며 데이터 분석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노트: ChatGPT의 활용 요령

🌟 커스텀 GPT 기능

특정 업무에 효과적이고 특화된 커스텀 GPT를 활용하면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다양한 커스텀 GPT를 확인해 보세요!



🗨️ 새로운 대화, 시작은 새 창에서

LLM과 대화할 때 주제를 변경하려면 새 대화창을 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대화의 맥락이 새 주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더 정확하고 관련성 높은 답변을 얻기 위함입니다.

💡 코드 실행

ChatGPT 4o는 파이썬 코드 작성 및 실행이 가능하지만 생성된 코드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결과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Claude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합니다.

💡 PDF 분석: LLM이 가장 잘하는 작업

ChatGPT, Perplexity.ai, Claude, Grok3, Gemini 대부분의 LLM은 PDF 문서를 분석하고 요약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긴 논문이나 보고서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도 있어요!

- AI가 생성한 코드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 데이터 해석, 맥락 이해, 윤리적 판단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 복잡한 분석 로직이나 장기적인 시스템 유지/보수에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AI를 맹신하지 않고 현명하게 적절히 활용하는 감각입니다.

※ ‘이야기가 있는 산책’은 필자의 전공 분야와 인접한 주제 또는 평소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피는 분야를 산책하듯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서른두 번째 필자로 진단검사의학팀 황상현 교수가 ‘AI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생활’을 주제로 3편의 글을 연재합니다.

변화 속에서 길을 찾다



간호교육행정팀 이창용 주임

지난해 병원이 진료지원시범사업 전담팀을 구성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공고를 보고 유닛 매니저님에게 조인을 구하고 새로운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어 전담팀에 지원했다.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병원 간호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나는 진료지원 전담팀의 첫 구성원이 되었다.

해보지 않았던 의료 행위를 해야 하다 보니 잘할 수 있을지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다. 원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교육을 들으며 이론을 공부하고 난도가 높은 술기들은 직접 실습하며 차츰 익숙해졌다. 하지만 첫 업무가 시작된 후 나를 비롯해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은 다소 긴장했다. 업무 분장 등으로 현장에서 어수선했던 분위기도 이어졌다. 하지만 모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해 나갔다. 특히 신설 부서의 첫 구성원들인 만큼 더 뭉쳐서 어려움을 헤쳐 나갔다. 각 부서별 특성이 달라 진료지원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 유닛 매니저님을 비롯해 각 부서 전문간호사 선생님들과 소통하며 해결했다.

욕창 및 상처 드레싱을 할 때 단계별 욕창 해당 여부, 소독 방법 등 다양한 케이스로 인한 어려움도 많았다. 예를 들어 장기 재원 환자의 환부 상태가 악화되거나 회복되면 드레싱 방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했다. 이때 상처장루실금 전문간호사 선생님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드레싱을 했고, 변경된 방법은 병동에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진료지원 전담간호사로서 첫 발걸음에도 다른 부서 동료들과 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환자들에게 조금 더 높은 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었다. 실제로 입원 기간 동안 환자들의 만족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칭찬을 듣기도 했다. 장기 재원 환자들의 욕창, 상처 등의 관리 방법이나 특이사항 등을 공유하며 환자와 유대감까지 형성할 수 있어서 더욱 성취감을 얻었다. 아직 비위관 삽입이나 유치 도뇨관 삽입 등 난도가 높은 술기들은 환자 상태에 따라 부담이 있을 때도 있다. 하지만 동료 간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 조인을 얻고 원내 교육을 이수하며 더 전문성을 갖춰야겠다고 다짐했다. 환자와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각 부서 의료진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료지원 전담간호사로 거듭날 것이다.



※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는 환자 곁에서 간호사가 적어 내려간 희망과 극복의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정치적 감수성, 나를 지키는 기술



건강의학과 안명희 조교수



정치의 사전적인 의미는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거창한 의미보다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정치란 '사내정치'라는 의미가 더 친숙하고 자주 쓰일 것 같습니다.

정치는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관계의 기술이자 힘의 흐름입니다. 직장에서 표면적으로는 업무의 형태를 띠지만 그 아래엔 사람들의 미묘한 심리, 권력의 흐름, 신뢰와 견제 사이의 밀당이 존재합니다. 각자의 영향력과 이익을 두고 암묵적인 경쟁과 협상의 장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인사평가, 프로젝트 배정, 회식 자리 좌석 배치까지 조직 내 정치는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히 조직에서 주요 보직을 맡게 되면 의도하지 않아도 정치적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잡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조직 내에서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정보가 그쪽으로 더 빠르게 흐르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특정한 의도가 없더라도 누구와 단순히 친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 라인'이라 불리게 되면 이는 때때로 본인의 의도와 무관한 해석이나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의 흐름은 업무 시 커뮤니케이션의 방향, 협업의 난이도, 업무 분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특정 라인이라는 인식이 고정되면 그 집단에 대한 감정이 개인에게 투영되어 오해가 생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때

내집단 편향과 근본 귀인 오류와 같은 인지적 왜곡이 작용하기 쉽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자신이 속한 부서나 직역의 실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지만, 다른 팀에서 비슷한 행동을 했을 때는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소속감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향이 쌓이면 동료 간 협업의 신뢰가 깨지고 소모적인 갈등이 반복되기 쉬우므로 의식적으로 조절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사내 정치에 반응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불안 성향이 높은 사람은 부서 개편, 직책 변경 같은 상황을 위협으로 감지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타인의 애매한 말이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필요 이상의 자기 검열하거나 아예 회피해 버리기도 합니다. 반면 경쟁 지향적인 사람은 정치적 흐름에 과몰입하거나,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충성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조직 개편 후 부서장이 바뀌면 이전 상사의 라인이라 불리던 사람은 주요 의사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데, 이는 다른 직원들에게 공식적인 성과나 평가 기준이 아닌 관계, 분위기 등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듯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은 일을 하는 곳이지만, 정말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스스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더해 어느 정도는 정치적 감수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한 만큼 관찰하고 참여하되 심리적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하며 중심을 잡는 것이 조직 내 지속 가능한 생존 전략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태도와 반응에 집중하며 건강한 조직 생활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 안명희 조교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2017년 건강의학과에 입사해 스트레스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지기' 담당교수로서 직원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구독의 시대



바야흐로 구독 경제의 시대다. 2025년 국내 구독 서비스 시장규모가 100조 원일 것으로 전망한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다.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면 나에게 맞는, 편리하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정기적으로 찾아온다. 나만의 취향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유용한 구독 서비스를 소개한다. <편집실>



다양한 커피, 와인을 마셔보고 싶다면?



| 커피 | 원두의 품종, 생산지, 로스팅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커피 맛과 향이 달라진다. 원두 종류에 따라 산미, 고소한 맛이 다르고 로스팅 정도에 따라 맛이 깔끔해지기도, 무거워지기도 한다.



커피리브레

매주 다른 종류의 신선한 원두를 받아 새로운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취향에 따라 한 가지 원두로 구성된 '싱글 오리진', 여러 종류의 원두를 섞은 '블렌딩' 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 에스프레소, 핸드드립 등 커피 추출 기구에 맞게 분쇄 방식도 설정할 수 있다.

월 48,000원(1주 200g 4주 기준)



| 와인 | 와인은 즐기기 어려운 술이라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생산지, 품종, 생산연도 등에 따라 종류가 많고 맛이 다르며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퍼플독

매월 맞춤형 와인을 보내준다. 설문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취향을 반영해 구독자에게 맞는 와인을 추천 및 배송한다. 또한 품종, 와이너리 등 해당 와인의 자세한 설명, 함께 곁들이면 좋을 음식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자도 보내준다. 앱에서 와인 도슨트 서비스도 제공한다.

월 39,000원(엘로우 싱글 등급 기준)

신선하고 저렴한 식재료, 과일을 먹고 싶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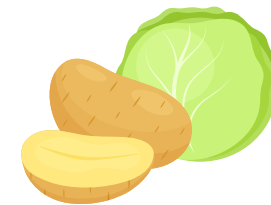


| 식재료 | 식사를 주로 밖에서 하는 경우 오랜만에 주말에 집에서 요리를 하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막상 재료가 거의 없다. 무슨 요리를 해서 먹어야 할지도 막막하다.



어글리어스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등으로 정상 판매되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농산물을 모아 1~2끼 분량으로 설정한 주기마다 정기 배송해준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맛과 신선도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간편하고 맛있는 요리의 레시피까지 함께 제공된다.



월 15,500원(스탠다드박스 기준)

| 과일 | 제철 과일을 다양하게 먹으면 좋지만 보통 구입하고 나면 다 먹을 때까지 다른 과일을 구입하지 않는다. 결국 다 먹지 못해 맛이 변하거나 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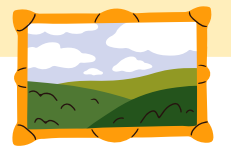


월간농협맛선

과일 전문 상품기획자(MD)가 계절에 맞는 제철 과일을 적정량 담아 세트로 구성한다. 마트에서 구하기 쉽지 않거나 비싸서 구입하기 부담스러웠던 과일도 포함돼 있다. 4월 기준 구독 과일 세트는 참외, 카라향, 대저썬잘이토마토, 청견오렌지, 파파야멜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월 50,000원(기본세트 기준)

색다르게 집을 꾸미고 싶다면?



| 꽃 | 제철 과일이 있는 것처럼 계절에 맞는 꽃이 있다. 봄은 벚꽃, 여름은 장미, 가을은 코스모스, 겨울은 동백꽃이 대표적이다. 매일 똑같은 집에 꽃을 더하면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꾸까

전문 플로리스트가 계절에 맞게 구성한 꽃을 2주마다 받을 수 있다. 농장에서 수확한 형태 그대로의 신선한 꽃이 배송된다. 수령 후 잎과 가시를 취향에 따라 제거하면 나만의 꽃병을 만들 수 있다. 예쁘게 포장된 꽃다발로도 받을 수 있다.



월 18,900원(S사이즈 기준)

| 그림 | 집 인테리어로 그림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명 작가의 실제 작품은 고가이고 해외 작가 작품은 구하기도 어렵다. 평소 그림을 잘 몰랐다면 선호하는 스타일을 알기도 쉽지 않다.



핀즐

매달 A1 사이즈의 새로운 포스터 그림을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최신 유행을 선도하고 가장 주목받는 작가의 작품을 골라 소개한다. 작가의 라이프 스타일, 인사이트를 담은 소책자도 그림과 함께 담겨 있어 풍부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월 18,900원



마음을 잇는 봉사활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장애영아원

치유 받는 의사



응급의학과 채보라 조교수



응급실은 기적과 한계가 맞닿아 있는 곳이다.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도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다. 수많은 생과 사의 현장을 마주하다 보니 병원을 벗어나 다른 어딘가에서 삶의 온기와 활기를 느끼고 싶었다. 그렇게 한사랑장애영아원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이곳은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게 주거 공간, 교육,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 수 있게 돕는 곳이다. 한참 손길이 필요한 때의 아이들이지만 일손은 늘 부족한 이곳에서 아이들과 짝을 이뤄 매일 체험활동을 돕게 됐다.

아이들은 만나는 순간이며 눈을 마주치는 때마다 언제나 함박웃음으로 나를 반겼고, 서툰 걸음이지만 망설임 없이 안겼다. 아이들은 찰나의 순간도 놓칠 새라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꼭 잡았다. 수없이 스쳐갔을 봉사자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매 순간 진심을 다하는 아이들의 따뜻한 모습에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고 배움을 얻었다. 책임감으로 무거워진 어깨와 잦은 밤샘 근무로 지친 몸을 이끌고

향하는 봉사지만, 그곳에서 나는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 '치유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혼자 시작했던 봉사, 이제 응급실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뜻이 맞는 다양한 직종의 동료들이 하나둘씩 모여 매달 함께 아이들을 찾고 있다. 병원 안에서는 나누기 어려웠던 진심도 이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 전하고 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세 번째 여름을 곧 맞이한다. 봄꽃의 포근함, 여름 바람의 시원함, 가을 단풍의 따스함, 겨울 눈꽃의 순수함 같은 아이들의 마음을 닮은 계절들을 하나씩 쌓아가며, 이 아이들과 오래도록 함께 걷고 싶다.

굿바이
콩글리시

'다리가 저리다'를 "My leg is sleepy"라고 직역하는 경우가 많다. 'Sleepy'는 감정이나 졸린 상태를 뜻하므로, 신체 부위의 저림은 'fall asleep'이나 'numb'을 쓰자. 올바른 표현은 "My leg fell asleep" 또는 "My leg is numb"이다. 찌릿찌릿 저린 느낌은 "I have pins and needles in my leg"라고 한다.

다리가 저리다

☹️ My leg is sleepy.

😊 My leg fell asleep. / My leg is numb.

Let's Talk

- A Why are you standing all of a sudden?
갑자기 왜 일어나요?
- B My leg is numb from sitting too long.
오래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저려요.

눈치

😊 social awareness / reading the room

Let's Talk

- A Did you see how Amy handled that?
에이미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봤어?
- B Yeah, she's really good at reading the room.
응, 눈치 빠르더라.

● Written by 아카데미운영팀 서영미 글로벌전문강사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합니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수술간호팀 박수진 주임

'마음을 잇는 봉사활동 - 노숙인 쉼터로 보내는 응원의 손길' 코너가 좋았습니다. 입사 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신 선생님 정말 멋져요. 저도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환자간호팀 김영진 선임기능

'잡·담 - 안정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글을 읽고 감동했습니다. 안정병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환자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환자 입장에서 누군가가 늘 나와 함께 해준다는 믿음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양공급팀 이현영 사원

'마음건강노트' 항상 잘 읽고 있어요. 모두 힘든 시기인데 이 코너의 글을 읽고 우리 병원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외과간호팀 이은주 사원

'협업의 가치 - 환자 입장으로 바라본 CT검사 전 당일 채혈 프로세스' 글 잘 읽었습니다. 환자의 불편을 공감하고 고민한 두 팀의 협업이 우리 병원의 가치를 더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암병원간호2팀 오지은 주임

'문화·생활정보 - 별빛이 내린다, 은하수 보러 가자' 코너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멋진 밤하늘을 볼 수 있다니,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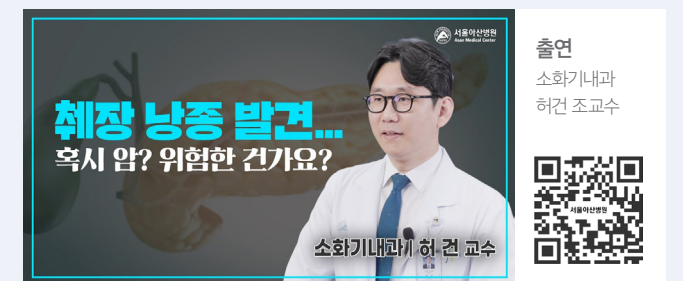
SNS 돌보기

[건강플러스] 밤마다 손이 찌릿찌릿 저리다면, '손목터널증후군' 의심!



반복적인 손목 사용이 원인인 손목터널증후군은 손가락, 손목이 저린 증상을 보이며, 야간에 더욱 심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평소 스트레칭, 보호대 착용 등으로 손목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형외과 김재광 교수가 손목터널증후군의 증상 및 치료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건강플러스]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췌장 낭종', 꼭 수술해야 할까?



건강검진에서 흔히 발견되는 췌장 낭종은 췌장에 생기는 물혹으로 종류에 따라 위험도가 다릅니다. 췌장암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수술을 고려하지만, 대부분 정기적인 추적 관찰로 충분합니다. 췌장 낭종 발견 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소화기내과 허건 조교수가 췌장 낭종의 종류와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